

시상징물제정을위한의견조회(건) 제안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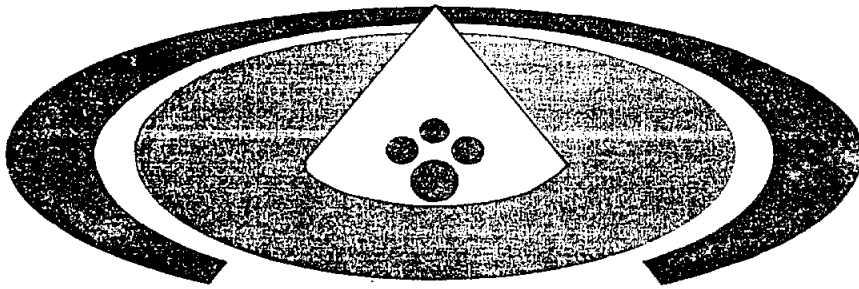
☐ 제안이유

- '95. 1. 1. 영주시와 영풍군이 통합하여 새로이 발족됨에 따라, 통합 영주시의 정서에 알맞는 시상징물을 제정하여
- 주민화합은 물론 시민의 구심점을 설정하여, 대내외적으로 대표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서 무궁한 발전계기를 마련하고자
- 폭넓은 공모를 통하여 응모된 작품을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심의 를 거쳐 선정한 시상징물(市旗, 시민의 노래, 市木, 市花, 市鳥)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사용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심사위원회 선정사항 : 붙임과 같음.
- 시상징물 제정 배경 및 그동안 추진사항 : 붙임과 같음.

● 당선작 ●



영주시

[시 기]

● 작품의 내용

- 전체적 향상은 통합 영주시의 높은 이상과 무궁한 성장을 상징
- 중앙 상단부분의 원뿔모양은 소백산과 곧은 신비의 정신이 하늘높이 치솟음을 의미
- 중앙의 원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롭고 평화로운 영주를 의미
- 작은 원형 4개는 사과와 인삼꽃을 상징하며, 바깥 타원형 테두리는 세계로 미래로 뻗어가는 영주시의 미래지향적인 의미 내포

• 응모자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0동 1633 파크맨션 603호 오 창 인

시 민 의 노 래

❖ 당선작 ❖

- 입선자 : 영주시 휴천3동 662 궁전맨션 2동 305호 이 정 애
- 노랫말 :

1. 우렁찬 소백산 정기를 받아
 대대로 복된삶 누려온 이곳
 우리의 행복한 꿈을 펼치는
 활기찬 거리엔 사랑이 넘치네.

2. 죽계천 맑은물 서천내 되어
 능금꽃 인삼향기 풍요로운 곳
 우리의 미래가 약속되는 땅
 기름진 옥토엔 희망이 영그네

후렴 여기는 자랑스런 내고향 영주
 우리는 하나된 정다운 영주시민

市木, 市花, 市鳥에 대한 說明文

[市 木]

○ 은행나무

은행나무에 딸린 落葉 針木의 喬木으로 樹高는 60m이상, 직경은 4,5mm까지 자람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耐火性, 耐寒性이 강하고 생장이 빠른편임.

공해와 병충해에 강하며 옛부터 서원, 향교, 서당부근에 많이 심고, 가로수로도 많이 사용하며 우리 시 관내에는 수백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많이 산재해 있음.

열매는 식용 및 약용으로, 잎은 고혈압, 심장병 등의 약용으로, 목재는 바둑판, 상, 조각재등으로 많이 사용됨.

관내에 200년이상 500년 6수, 500년 이상 700년 2수, 700년 이상 1수, 1,100년 1수 순흥면 내죽리의 1,100년 된 은행나무는 도목 46호로 지정

[市 花]

○ 철쭉꽃

진달래과에 딸린 전국 標高 100~2,000m의 산야에 자생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 2~5m정도 자라며, 한국, 중국, 일본, 만주에도 분포.

꽃은 5월에 피며, 담홍색으로 불완전한 색깔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감미로우며, 정감을 넘치게 하고, 꽃은 독성이 있어 식용으로 할 수 없음.

소백산 연화봉 일대에 많이 자생하고 있음.

[市 鳥]

○ 까치

까마귀과에 속하는 새로,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서식하는 새이며, 원산지는 한국임.

흰색과 검은색을 띠고 있으며, 임겁 해충을 포식하며, 옛부터 길조로 일식되어 오고 있으며, 모든 일에 길조를 예고하고 밝은 미래를 예고하기도 함.